

# 비판사회학 소식지

평등 비판사회학회

권두언

## 비대면 시대의 비판사회학회



■ 최인이  
(부회장/총남대)

비판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계절은 어김없이 변하여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제법 선선한 날씨의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는 대면수업이 가능하겠지.. 내년에는 모여서 즐겁게 학술대회를 할 수 있겠지.. 하며 가져 보았던 기대가 번번이 무너지면서 다시 또 비대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 되어온 지난 1년 반 동안 비판사회학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운영위원회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제주도 춘계학술대회가 아쉽게 무산된 이후, 하계 워크샵과 가을 학술대회 그리고 동계워크샵 그리고 또 한번의 하계 워크샵을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로 진행하면서 저 또한 학회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년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들이었지만 “비대면”이라는 형식의 전환은 시공간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저에게는 약간의 정서적 불편함과 정신적 불안감도 가져다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루어지는 내용들의 훌륭함을 비대면 방식으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온라인을 통한 학술발표와 토론은 깔끔한 형식과 편리한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전의 학회들에서 경험했던 열띤 토론이나 즐거운 농담을 동반한 친근한 분위기까지 연결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면 계속)

발행인: 백승욱 / 편집인: 박찬중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684 민주노총  
 서울본부 307호  
 Homepage: www.criso.or.kr  
 E-mail: sansahak1984@gmail.com  
 전화: 02-3148-6220

무엇보다 서로의 반응을 모니터 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언어적 표현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아쉬운 점은 행사의 백미인 뒷풀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후의 뒷풀이에서 학회원들 간의 새로운 만남, 진솔한 의견교환들이 이루어졌었기에 그동안 학회가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끈끈한(?) 정서적 토대가 만들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비대면 행사에 참석하면서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비대면 학회행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늘 “나가기” 클릭을 주저하게 되는 것도 비공식적인 소통의 즐거움에 대한 그리움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회는 비대면 상황이 만들어낸 정서적 공백을 줄이고 학회원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학회를 조직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학회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한 비판사회학교가 성황리에 끝났고, 가을 학술대회를 위한 사전모임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는 뒷풀이가 아니어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장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 장을 통해서 신진 학자들의 등장과 역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사회학교의 경우는 특히 서울 중심의 프로그램에서는 함께하기 힘들었던 지역의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었던 덕분에 비판사회학회의 외연 확장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들 간의 학문적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하계워크샵 또한 진지한 학술적 대화의 장으로서 우리 학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준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학회는 온라인 학술행사에 참여한 회원(혹은 미래의 회원)들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앞으로 비판사회학회를 이끌어갈 학문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회 내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회장님 이하 운영진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비대면 시대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더욱 발전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비판사회학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20회 콜로키움: 2021년 10월 7일(예정)

■ 저자와의 북토크: 김명수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창비, 2020)

- 일시: 2021년 10월 7일 (목) 17:00~18:20
- 장소: Zoom 온라인 북토크
- 사회: 육주원(경북대) / 토론: 장세훈(동아대), 지주형(경남대)

※ 상세한 참가방법은 향후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1 비판사회학교〉

## 비판으로서의 해석: 〈질적연구방법〉 강좌 후기

■ 추지현 (운영위원/서울대)

비판사회학회는 새로운 방중사업으로 〈비판사회학교〉 3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강좌당 5개 강의로 구성되었고, 〈질적연구방법〉 강좌는 7월 31일~8월 1일, 〈비판사회이론〉은 8월 9일~13일, 〈세계화와 사회변동〉은 8월 16일~20일로 순차 진행되었습니다. 강좌특성상 수강인원제한이 있었던 〈질적연구방법〉은 32명이 신청하였고, 〈비판사회이론〉은 88명, 〈세계화와 사회변동〉은 81명이 신청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비판사회이론〉과 〈세계화와 사회변동〉의 강의록은 출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비판사회학교 강좌 중 〈질적연구방법〉의 운영 후기를 씁니다.

COVID-19의 확산은 학회 활동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각자 진행하고 있던 연구를 소개하고 논문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지속되어 온 〈대학원생 워크숍〉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팬데믹이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대학원생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대학원생들이 질적 연구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 그로 인해 초래된 연구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2021년 〈비판사회학교〉 운영 일부로서 〈질적연구방법〉 강좌 개설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2월부터 4명의 강사진이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질적연구방법〉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할지를 논의하고 기획안을 마련해갔습니다. 그리고 강좌 안내 및 참여자 신청 접수 개시 30분만에 정원 마감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도 청강 및 자료 구매 문의가 지속되는 상황은 질적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대학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강좌가 진행된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 그 밖에도 제게 이 강좌의 기획과 운영 경험은 아래와 같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첫째, 강사라는 위치를 떠나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서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기획 과정에서 강사들은 질적 연구가 놓여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자신이 마주했던 어려움과 고민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다양한 분석 틀과 데이터 수집 기술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그 습득을 기피하는 이들이 수행하는 것이 질적 연구라 보는 시선, 그러한 편견을 완전히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해석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구술과 자료를 그 자체로 객관적 사실로서 다루는 연구의 경향들, 연구윤리나 연구참여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연구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 사이에서 중심잡기 등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의 고유성을 무엇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을지, 사회적 실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사들 사이의 생각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고, 이를 두고 토론하는 과정은 그간 각자 수행해 온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적연구방법〉이 하나의 강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소통 매개로서 지속되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면 계속)

둘째, 질적 연구가 비판이라는 기획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질적연구방법>을 표방한 특강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강사들은 하필 비판사회학회에서 이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경험은 이미 해석이며 또한 재해석 되어야 할 무엇이라 보는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비판은 바로 그 해석이 이뤄지는 과정, 지식 생산자의 위치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계급, 성별, 장애, 인종과 같은 변수를 통해 설명 가능한 것으로 일축하고, 정작 그들이 그러한 조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지에 무관심한 채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을 문제화하는 것은 한계가 클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치적 변혁을 위해 타인의 경험을 도구화 하고 또 다시 소외시키는 인식론적 폭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부터 지배 질서의 작동 방식을 읽어내고 변화의 잠재력과 가능성, 개입의 지점을 구체화하는데도 실패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오랜 이 문제의식이 오늘날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작업들에 과연 연동되고 있는지, 질적 연구의 강점이라 할 해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비판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지식 생산자의 위치와 지식 생산의 과정을 통해 비판의 의미를 구체화 하는 논의는 다가올 비판사회학대회를 통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셋째, 기존 학술 모임 운영 관행의 한계를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많은 학술행사와 특강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또한 면대면의 만남이 보다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만큼 온라인 행사는 COVID-19로 인한 불가피하고 잠정적인 조치라 여겨지는 경향도 큼니다. 하지만 이번 강좌에서 두드러졌던, 지방 거주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는 가뜩이나 관련 수업과 지도 받기, 지적 교류가 힘든 지역의 상황과 이를 간과해 온 학회의 운영 방식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줌을 통한 강좌는 기대 이상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도 가장 우려했던 것이 온라인을 통해 충분한 의사 전달과 토론, 실습 참여가 가능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팅창은 가설 만들기 참여나 질문 등 면대면 소통의 부담을 덜면서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활성화 해주었습니다. 물론 진행자의 부담은 더욱 커졌지만 말입니다. 일회적 형식과 단발적 주제로 특강과 같은 학술행사가 진행되는 경향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절감했습니다. 5회, 각 90분의 강좌만으로 실습과 토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강사와 수강생 모두가 5시간 여의 강좌 집중에 지쳐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실습의 시간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주로 논의한 생애사 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매개로 질적 연구와 비판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려나갈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한 상황인 바, <비판사회학교> 및 <질적연구방법>이 보다 안정성을 갖고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강의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연구자가 필요하며, 다양한 필드, 연구 방법, 인식론에 열려 있는 비판사회학회의 학풍 구축이 학회원 영입에도 핵심적 선결과제로 보입니다.

별써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1학기 내내 질적연구방법을 화두로 머리를 맞대어 주신 이희영, 육주원, 김재형 강사님, 실시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이예진 간사께 감사드립니다. 첫 시도라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고민을 보내고 계신 수강생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은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판사회학교>와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자들의 만남, 비판에 대한 고민, 지식 재생산의 구조를 살피고 변화의 노력을 꾀하는 시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끝)

〈19회 콜로키움〉

## 가난이 표현하는 ‘문화적 각본’ 19회 콜로키움 1부 〈사당동+33〉 조은 감독과의 대담 참가기

■ 신희주 (운영위원/가톨릭대)

올해 비판사회학회 여름 콜로키움은 작년에 이어 여전한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기획되었다. 이제까지는 대학원생들의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콜로키움이었지만, 이번에는 올해 비판사회학회 학술 운동의 화두인 「비평의 재구성」이라는 고민과 맥락을 함께 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당동 철거민 가족의 33년간의 삶을 다룬 〈사당동 더하기 33〉의 감독인 조은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좌담회를 갖기로 한 것이었다. 오랜 시간 몸담아온 대학을 떠난 이후에도 빈곤이라는 주제를 계속 연구하여, 이제는 글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서울독립영화제 장편 경쟁부문 최우수 작품상까지 수상을 했으니, 교수라는 호칭 대신 감독으로 불리워도 어색하지 않은 성과를 이룬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비판사회학회는 이 행사를 전연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 당일의 주어진 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준비팀은 좌담에 참석할 사람들로부터 좌담 일주일 전부터 신청서를 받았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좌담회 전에 미리 영상을 시청하도록 스트리밍을 전송했다. 또한 좌담회 당일에 현장에서 더욱 원만한 진행과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좌담회 참석자들에게 영상을 시청한 뒤 조은 감독님에 대한 질문을 미리 준비 담당팀에게 보내도록 요청하였다. 좌담회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 100여명, 사회학자이자 다큐 감독인 조은 교수님의 〈사당동 더하기33〉의 명성을 입증하는 것 같았다. 좌담회 당일, 현장인 HJ 홀딩스에는 사회를 맡아주신 이희영 교수님과 조은 감독님, 당일에 카메라 감독이 된 비판사회학회 회장님, 운영위원장님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줌(Zoom)을 통해 조은 감독님을 만나게 되었다.

조은 감독님에게 직접 들은 〈사당동 더하기 33〉은 2020년에 완성되어 영화제 수상을 한 다큐멘터리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를 담고 있었다. 이 다큐는 애초부터 영상으로 기획된 작품이 아니었다. 조은 감독님은 사당동 재개발과 함께 철거되는 도시 공간을 살아가던 가족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1986년경 현장노트를 중심으로 작업하며 한 가족을 알게 되었고,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글과 몇장의 사진으로 기록한지 10여년쯤 지났을 무렵, 이 가족의 삶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후 11년의 작업은 2006년에 〈사당동 더하기 22〉로, 그 이후로 또 11년의 가족의 역사는 〈사당동 더하기 33〉으로, 제목 그대로 33년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인공이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청년이던 할머니의 아들은 노인이 되었고 세 명의 손자들은 중년이 되었지만, 가난은 늘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세대를 관통하며 시간을 타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와 만났고, 섹슈얼리티와 교차했다. (다음 면 계속)



8월 23일 <사당동+33>  
조은 감독과의 대담(zoom  
화면 캡처)  
이희영(대구대 교수/좌),  
조은(동국대 명예교수/우)

그러나이 가족에게 사납게 일렁였을 ‘가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다큐 제작자의 시선은 영상 속 감독 본인의 내레이션 만큼 차별했다. 그 이유를 좌담회에서 조은 감독님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당동 더하기 22 때부터 호흡이 긴 다큐를 만들고 싶었다. 사회학자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었다...(중략) 그냥 가난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궁금해졌고, 가난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난의 일상, 그 일상이 시공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다큐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긴 호흡을 따라가다 보니,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빈곤이 사라질까 혹은 그 다음 세대는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 같은 질문보다는 가난을 따라 나타나는 가난의 다양한 모습이 보였다고 조은 감독님은 말했다. 그렇게 긴 시간동안 다큐의 주요 캐릭터들이 바뀌고, 가난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가족의 삶에 내려앉고, 감독은 보이는 가난의 모습들을 그냥 계속 “따라”갔던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사회학자로서의 감독의 태도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조은 감독님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밀었다면 이 다큐는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메라 없이 대상자들과 직접 부대끼는 11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이후의 11년간의 영상 작업도, 그 이후의 촬영도 가능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각과 시선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그들과의 시간에서 형성된 라포를 기반으로 감독은 등장인물로부터 거짓 아닌 사실들을 얻어냈을까? 궁금해졌다. 이 점에서 필자는 조은 감독님이 ‘문화적 각본’이라 부른 개념이 매우 인상 깊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회적 개념과 가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즉 그들의 내러티브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와 개념들은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한 시간 이십분 가량의 좌담회는 사회학적 글쓰기가 영상이라는 영역뿐 아니라 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영역의 글쓰기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조은 감독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오늘 이야기되지 못한 수 많은 질문들과 대답들은 <사당동 더하기 33>에 대한 또 다른 자리에서, 그리고 사회자였던 이희영 교수님의 말처럼 새로운 세대에 의해 지속되고 함께 할 <사당동 더하기 44>를 통해 나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끝)

■ 콜로키움 1부 준비: 신희주 운영위원(가톨릭대), 조혁진 운영위원(한국노동연구원)

■ 19회 콜로키움 2부 대학원생 워크샵 발표목록

세션 1-1. 청년 (사회: 김명수)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김경민 (중앙대)	열악한 주거권과 주거환경에 따른 청년의 정신건강	김명수 (서울대)
최고훈 (중앙대)	청년 여성의 독립과 자원으로로서 주거복지정책: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중심으로	조은주 (명지대)
임재연 (서울대)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 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영미 (연세대)
이상희 (연세대)	캐주얼 섹스 '게임'에서의 규칙과 능숙한 플레이어 되기: 데이팅 앱 '틴더'로 이성애 섹스를 하는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지현 (서울대)

세션 1-2. 담론, 공간, 연결 (사회: 김철식)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유윤열 (성공회대)	한국 시민운동의 포스트 담론 경향 비판: 탈(脫) 사례를 중심으로	홍성태 (고려대)
임정빈 (경상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이론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의 가능성	이기홍 (강원대)
김중훈 (서울대)	서울시 PC방의 공간분포 분석과 유형화	김철식 (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현 (서울대)	명성 쌓기와 인맥 자본주의의 교차: 국내 학부 성악 전공자 대상 파일럿 인터뷰를 중심으로	정인관 (숭실대)

세션 2-2. 여성, 소수자 (사회: 이태정)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류다현 (이화여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생존과 이탈 경향 및 요인 분석: 생존분석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김효정 (여성정책연구원)
신민주 (전북대)	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혼합연구: 전라북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태정 (성공회대)
김지혜 (전북대)	트위터의 #StopAsianHate 액티비즘이 이분화된 인종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열둠 현상을 식힐 수 있었을까?	서선영 (충북대)
박재승 (중앙대)	한국 영화산업 내 여성 주변화 현상: 독립 영화감독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영 (부산대)

세션 2-3. 노동, 개발 (사회: 최인이)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이다은 (이화여대)	한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소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를 중심으로	최인이 (충남대)
신양희 (만하임대)	Do firms make us poor? Effects of corporate behaviors on labor insecurity in four European countries: the U.K, Germany, Sweden, and Italy	조혁진 (노동연구원)
이시림 (연세대)	대중음악산업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자본주의	임운택 (계명대)
김명지 (제주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개발주의 비판적 검토	박지훈 (중앙대HK사업단)

■ 콜로키움 2부 세션구성 및 조직: 황선재 운영위원(충남대)

회원 신규박사논문 소개

## 푸코-마르크스주의와 화폐 노동-가치, 물신숭배, 권력관계 그리고 주체화

■ 배세진 (파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사)

- 원문제목: *Monnaie et Foucault-marxisme : valeur-travail, fétichisme, relation de pouvoir et subjectivation*
- 학위수여대학: 파리 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ED 624 “사회에 대한 과학들”(École Doctorale 624, Sciences des Sociétés) ‘정치철학’(Philosophie Politique) 전공
- 지도교수: 파리 대학교 마리 퀴레(Marie Cuillerai) 교수와 연세대학교 이상길 교수 공동지도
- 학위수여년도: 2021년 5월

본 논문에서 우리는 최근 철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금융과 부채에 관한 연구들에 그 인식론적 토대로 쓰일 수 있는 화폐의 정치철학을 푸코-마르크스주의라는 이론적 틀 내에서 정교구성한다. 서론(‘부채’와 ‘금융’의 공통 토대로서의 ‘화폐’))에서 우리는 최근 다양한 분과학문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금융과 부채에 관한 연구들이 화폐 개념 그 자체에 관한 정치철학적 사유라는 필요불가결한 토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1부(‘마르크스에게서 화폐: 추상노동, 화폐 그리고 금융’))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화폐론>>(La Monnaie chez Marx)에 각별히 주목하는 방식으로 쉬잔 드 브뤼노프(Suzanne de Brunhoff)의 마르크스 화폐론 재구성을 추수하면서 브뤼노프와 친화성이 있는 여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노동-가치’ 개념에 관한 이론화들을 종합해 결국 마르크스에게서 화폐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의 결론으로 우리는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에게서의 포스트-구조주의적인 가치론과 잉여가치론에서 화폐적 주체론으로의 이행을 설정한다. 이 결론을 징검다리 삼아 2부(발리바르에 의해 재구성된 마르크스적 물신숭배론: 이데올로기에서 물신숭배로))에서 우리는 ‘상품의 사회계약’이라는 발리바르의 포스트-구조주의적 개념을 수단으로 마르크스의 물신숭배론을 발리바르적으로 그러니까 포스트-구조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이 철학적으로 재구성된 발리바르적 물신숭배론을 마르크스의 물신숭배론을 관계체적인 것과 유사-초월론적인 것으로서의 ‘물신숭배’ 즉 화폐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 물신숭배론으로 재확립한다. 3부(‘푸코-마르크스주의의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요소들: 유명론, 가두기 장치 그리고 화폐’))에서 우리는, 4부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를 구축하기 위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게서의 유명론, 가두기 장치 그리고 화폐 개념을 ‘권력관계’라는 하나의 프리즘 내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해명하고, 이를 푸코-마르크스주의의 구축을 위한 전제로 확립한다. (다음 면 계속)

4부(〈들뢰즈의 푸코에서 발리바르의 푸코로: 생기론, 바깥의 정치학 그리고 파레시아〉)에서 우리는, 푸코-마르크스주의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푸코의 철학 전체를 재조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푸코 철학 전체에 관한 최적의 재해석과 재구성을 수행했다 판단되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푸코〉〉(Foucault)에 각별히 주목하면서, 푸코의 철학 전체를 ‘주체화’라는 하나의 지도원리에 따라 일관되게 재구성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들뢰즈의 재구성성이 내포하는 생기론이라는 관점을 비판하고 이를 지양하기 위해, 발리바르가 바깥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수단으로 실현한 정치적 방식의 푸코 독해를 경유해 생기론적 푸코가 아니라 정치적 푸코의 초상화를 그린다. 5부(〈‘두 가지 구조’ 혹은 ‘메타/구조’에 대한 이론으로서 푸코-마르크스주의: 발리바르와 함께 비데를〉)에서 우리는 자크 비데(Jacques Bidet)의 ‘메타/구조적 접근’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뒤, 비데가 이러한 메타/구조적 접근 속에서 구축하는 푸코-마르크스주의를 그의 저서 〈〈마르크스와 함께 푸코를〉〉(Foucault avec Marx)의 논증을 세심히 따라가면서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이러한 비데의 사회-과학적인 푸코-마르크스주의의 구축물을 발리바르의 철학적인 푸코-마르크스 상호접근과 비교하면서 푸코-마르크스주의의 중핵이 화폐라는 테제를 제시한다. 결론에서 우리는 비주류 경제학 내에서 가장 유의미한 방식으로,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주류경제학에 반대하여 화폐를 연구하고 있는 흐름인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을 간단히 비판하면서 푸코-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정교구성된 화폐의 정치철학의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끝)

**서론: ‘부채’와 ‘금융’의 공통 토대로서의 ‘화폐’**

**1부. 마르크스에게서 화폐: 추상노동, 화폐 그리고 금융**

1. 서론: 추상노동 개념과 화폐
2.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
3. 마르크스의 화폐기능론의 재구축
4. 마르크스의 금융론의 재구축
5. 가치에서 화폐로, 화폐에서 금융으로
6. 결론: 포스트구조주의적 가치론/잉여가치론에서 화폐적 주체론으로

**2부. 발리바르에 의해 재구축된 마르크스적 물신숭배론: 이데올로기에서 물신숭배로**

1. 서론: 알튀세르에게서 발리바르에게로
2. 〈〈역사유물론5연구〉〉와 〈〈마르크스의 철학〉〉에서 제시된 마르크스 자신의 물신숭배론
3. 마르크스의 ‘두 가지 발견’을 통한 물신숭배론의 자리지움
4. ‘상품의 사회계약론’을 통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마르크스적 물신숭배론 재구성
5. 결론: ‘관계체적인 것’과 ‘유사-초월론적인 것’으로서의 물신숭배

**3부. 푸코-마르크스주의의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요소들: 유명론, 가두기 장치 그리고 화폐**

1. 서론: 에티엔 발리바르가 제시하는 푸코의 마르크스에 대한 입장 변화
2. 유명론자로서 푸코와 마르크스
3. (탈-)마르크스적 개념으로서 가두기 장치
4. 푸코-마르크스의 소실 매개자로서 화폐
5. 결론: 화폐적 관계의 유명론으로서 물신숭배론

**4부. 들뢰즈의 푸코에서 발리바르의 푸코로: 생기론, 바깥의 정치학 그리고 파레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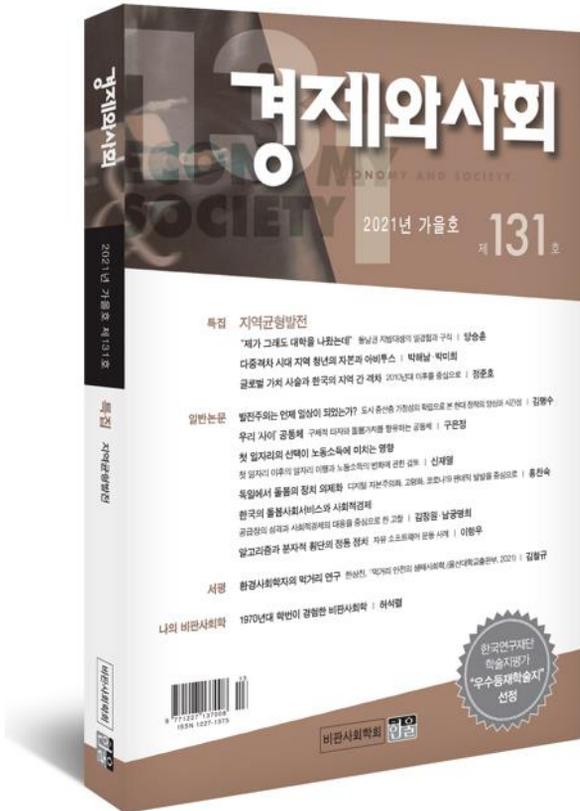
1. 서론: 푸코 철학의 항구적 대상으로서 주체화
2. 들뢰즈의 생기론적 푸코: 지식에서 권력으로, 권력에서 자기로
3. 발리바르의 정치적 푸코: ‘헤테로토피아’와 ‘파레시아’
4. 결론: 정치적 푸코에게서 저항

**5부. ‘두 가지 구조’ 혹은 ‘메타/구조’에 대한 이론으로서 푸코-마르크스주의: 발리바르와 함께 비데를**

1. 서론: 미셸 푸코의 반-마르크스, 칼 마르크스의 반-푸코
2. 자크 비데의 ‘메타/구조적 접근’
3. 푸코와 마르크스 사이의 ‘쟁론’을 위한 예비적 논의: 푸코에게서 시민사회 개념
4. 마르크스의 분석대상으로서 소유-권력과 푸코의 분석대상으로서 지식-권력
5. 마르크스의 구조주의와 푸코의 유명론
6. 결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분석과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양식 분석

**결론: 또 다시, 화폐란 무엇인가?**

〈경제와사회〉 131호(9월 발간) 목차



〈경제와 사회〉 링크

■ 특집: 지역균형발전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들의 일 경험과 구직

양승훈

다중격차 시대 지역 청년의 자본과 아비투스

박해남 · 박미희

글로벌 가치 사슬과 한국의 지역간 격차 201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정준호

■ 일반논문

발전주의는 언제 일상이 되었는가?

도시 중산층 가정성의 확립으로 본 현대정치의 양상과 시간성

김명수

우리 ‘사이’ 공동체 구체적 타자와 돌봄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구은정

첫 일자리의 선택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첫 일자리 이후의 일자리 이행과 노동소득의 변화에 관한 검토

신재열

독일에서 돌봄의 정치 의제화

디지털 자본주의화,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을 중심으로

홍찬숙

한국의 돌봄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공급자의 성격과 사회적경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고찰

김정원 · 남궁명희

알고리즘과 분자적 횡단의 정동 정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사례

이향우

■ 서평

환경사회학자의 먹거리 연구

한상진, 『먹거리 안전의 생태사회학』 (울산대학교출판부, 2021)

김철규

■ 나의 비판사회학

1970년대 학번이 경험한 비판사회학

허석렬

『경제와 사회』 131호는 DBpia를 통해 9월 중순부터 원문공개됩니다.

※ 『경제와 사회』는 회비납부 회원들에 한하여 원문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논문원문이 포함된 이메일 저널레터로 우선 송부됩니다.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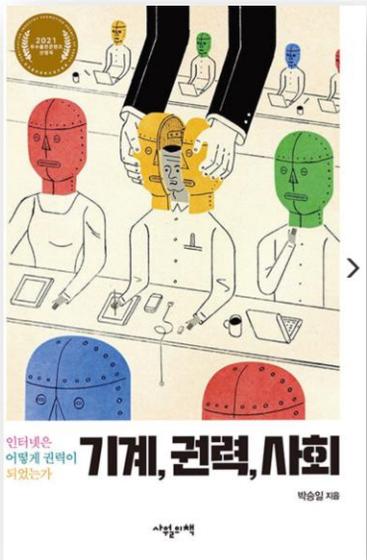
## 전문가주의를 넘어

한울, 2021년 6월, 326쪽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전문가주의란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믿음 체계다. 현대사회는 기술적으로 복잡해, 사회적 의사결정 역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로 경도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이다. 더 나아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자,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이야기할 때 그중 하나로 전문가주의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 및 전문가주의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전망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목차링크



## 기계, 권력, 사회 인터넷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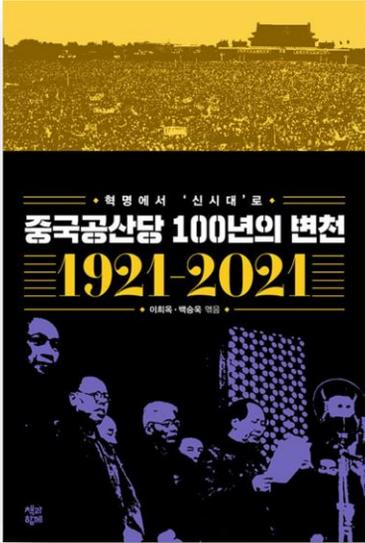
사월의책, 2021년 8월, 440쪽

박승일 (서강대 미디어융합연구소)

오늘날 인터넷에는 정보 편향으로 인한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개인에게 맞춤 제공되는 검색 결과와 광고가 디지털 감시사회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과연 인터넷은 새로운 자유를 실현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양극화로 빠져들게 한 것인가? 이 책은 Y2K, KT 화재,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검색 알고리즘, 웹 2.0, 플랫폼 경제 등을 종횡무진 가로지르면서, 너무나도 자유로운 인터넷 세계의 이면에 있는 새로운 권력의 실체를 밝힌다. 새로운 정보 환경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권력의 효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새로운 권력이 감시가 아닌 '자유'를 통해 우리의 환경과 정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교묘한 권력이라는 점에 있다.

목차링크

회원시간소개



##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1921-2021

책과함께, 2021년 6월, 332쪽

백승욱 외 (중앙대 사회학과)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아, 한국의 중국 연구자들이 이론, 노선, 경제, 조직, 외교, 노동운동, 젠더 등 다방면으로 100년사를 살펴본다. 시기를 혁명, 건설, 발전 그리고 신시대로 구분해 접근한 것은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적 맥락이 보편과 특수, 혁명과 건설, 지양과 계승의 길항 관계 속에서 역사적 실험을 해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열린 토론과 더 풍부한 논의를 위해 필자들 사이의 상충되거나 논쟁이 될 있는 입장들을 통일하지 않고 살렸다. 중국공산당의 역사는 비단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도 각기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국가의 의미, 세계 자본주의에 깊게 포섭된 중국의 미래,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원심력과 구심력,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 다양한 토론의 주제가 공론장에서 제기하고 있다.

목차링크



## 퀴어돌로지 전복과 교란, 욕망의 놀이

오월의봄, 2021년 7월, 392쪽

연혜원 외 (서강대 사회학과)

이 책을 기획한 연혜원은 이렇게 말한다. “퀴어들은 언제나 나고 자란 곳이 아닌 퀴어들의 공동체, 자신이 선택한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꾼다.” 따라서 “취향은 퀴어들에게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가 되어왔다”(7쪽)라고. 어떤 퀴어들은 바로 이런 세계에서 모인다. 아이돌을 매개로 그들은 퀴어적 실천을 하기도,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해내기도 한다. 그리고 퀴어들이 케이팝 아이돌을 사랑하는 이유와 그 방식을 기록하는 것에서 출발해 케이팝과 그 팬덤, 팬덤 문화의 퀴어함을 다각적으로 다뤘다. 남성 아이돌을 사랑하는 레즈비언과 여성 아이돌의 춤을 추는 게이, 여성 아이돌을 사랑하는 여덕의 마음, 알페스의 세계, 퀴어함이 기본값인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퀴어 혐오적 양상들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나아가 이것은 성별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의 렌즈가 아닌 퀴어한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지금 여기의 퀴어문화를 생생히 기록한 문화기술지이자 아이돌과 케이팝, 그리고 세상을 ‘퀴어링’해내는 기획이기도 하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 조선평전

자유언론실천재단, 2021년 3월, 326쪽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선평전은 1920년 3월 5일 창간된 조선일보의 ‘100년 평전’이다. 조선일보의 창간에 얽힌 사실 규명과 일제 강점기 언론으로서의 역할, 특히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1933년 이후 조선일보의 변화를 앞 장에서 다룬다. 이어서 해방 공간과 이승만 정권 시기, 유신 시기, 1980년대 5공 정권과 조선일보의 고속 성장기, 문민정부 이후 공고한 권력으로 기능하는 조선일보를 평한다. 후반부에는 조선일보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남북관계와 인권, 그리고 조선일보 안에서 전설로 얘기하는 기자 김대중과 기자 정신을 조선일보가 쓴 기사로 논한다. 필자는 “언론을 평가할 때 정파나 이념의 구분을 넘어 저널리즘의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때 국제적으로 언론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저널리즘 가치인 진실과 공정, 권력감시”를 준거 틀로 [조선평전]을 썼다. 그런 점에서 [조선평전]은 ‘조선일보 100년 모니터 보고서’이자 조선일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론직필’이다.

[목차링크](#)



## 동아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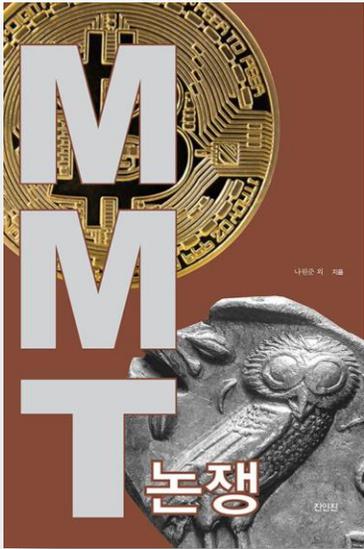
자유언론실천재단, 2021년 3월, 332쪽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동아평전]은 1920년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의 ‘100년 평전’이다.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창간된 초창기 동아일보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와 일제 강점기 언론으로서의 영욕을 앞 장에서 다룬다. 이어서 해방 공간 시기 한국민주당(한민당)의 대변지에 가까웠던 동아일보를, 이후 이승만 정권 시기와 유신 시기, 1980년대 5공 정권까지 대한민국 대표 권위지 시기의 명암을 평한다. 후반부에는 한국 최고의 신문이었던 동아일보의 쇠퇴와 언론자유에 새로운 도전, 그리고 사주 일가의 문제와 한계를 동아일보가 쓴 기사로 논한다. [동아평전]은 [조선평전]과 짝으로 나온 책이다. [조선평전]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언론을 평가할 때 정파나 이념의 구분을 넘어 저널리즘의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때 국제적으로 언론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저널리즘 가치인 진실과 공정, 권력감시”를 준거 틀로 [동아평전]을 썼다. 그런 점에서 [동아평전] 또한 ‘동아일보 100년 모니터 보고서’이자 동아일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론직필’이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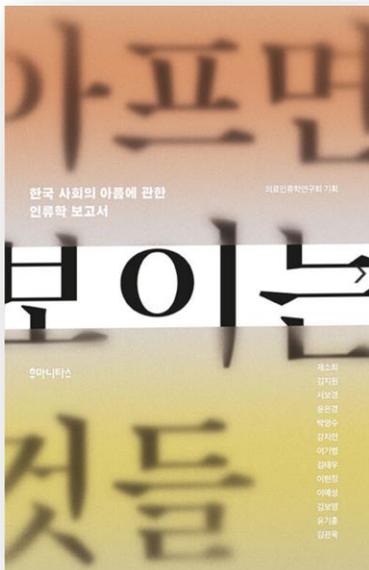
## MMT 논쟁

진인진, 2021년 6월, 364쪽

신희영 외 (Wright State University)

우리사회에서도 MMT가 갖는 다양한 이론적, 정책적 논점들은 때로는 학술논문의 엄격한 언어를 통해 그리고 때로는 유튜브와 SNS의 대중적 언어를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되고 있다. 비록 후자의 경우에는 이론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도 더러 보이지만 말이다. 전문가라며 나서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정작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세태의 한 반영일 터이다. 이 책은 2021년 3월말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학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MMT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모은 결과물이다. 이 책의 11개 장 가운데 6개는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한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다. 전문 학술지이건 일반 학술지이건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MMT 관련 논문은 이 책에 사실상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지금 국내 학계에서 MMT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그 경향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링크



## 아프면 보이는 것들 한국사회의 아픔에 관한 인류학적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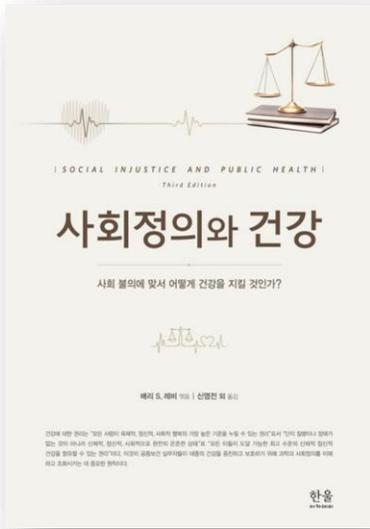
후마니타스, 2021년 8월, 352쪽

서보경 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의학이 다 설명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아픔'을 인류학의 시선으로 훑어보는 책. 산후풍, 난임, HIV, 희귀난치 질환, 중증 환자 사망, 간병 노동, 사회적 참사, 장애, 성매개감염, 국가유공자, 흡연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사례 중심으로 살핀다. 이 과정에서 만난 의료의 대상에서 배제당하거나 존엄하게 살 기회를 박탈당한 삶들은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저자들은 단순히 비판이나 부정을 하기보다, 이 '아픔'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치유와 연대를 논하고 싶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파 보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에 다가가자고 제안한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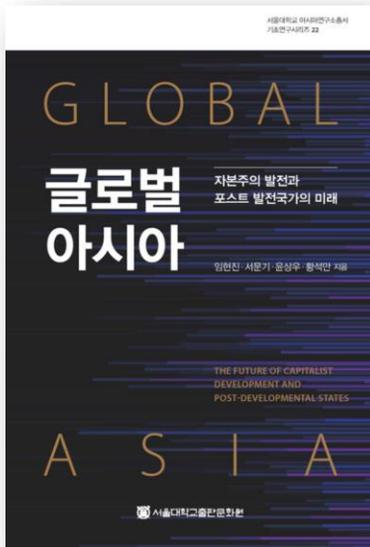
**사회정의와 건강** 사회불의에 맞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한울, 2021년 8월, 704쪽

Barry S. Levy ed. / 김명희 외 역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회 불의에 맞선 영미권 보건의로 분야 학자와 활동이 가들의 고발장이자 저항의 기록이다. 사회 불의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의 번역은 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 불의에 맞서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료인, 학자, 전문가들이 맡았다.

목차링크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년 8월, 296쪽

윤상우 외 (동아대 사회학과)

국제 지형에서 21세기 사회발전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동아시아는 동시에 구조적 사회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일컬어지는 발전주의는 왜 사회 양극화를 비롯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발전 연구 프로젝트의 1차 성과물인 『글로벌 패러독스』(2016)에 이어서 이 책에서는 아시아 사회발전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아시아 자본주의 및 발전국가의 기원과 전개, 포스트 발전주의의 정체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발전 경로가 세계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미래 발전에 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하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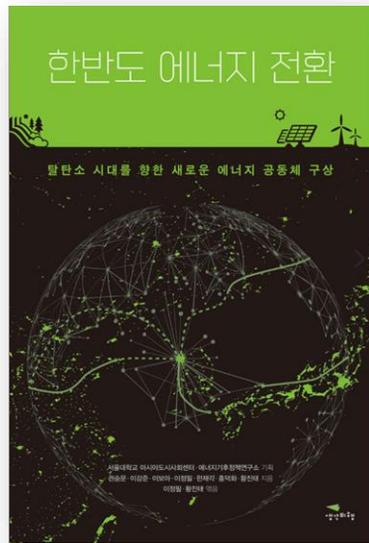
## 과도한 부

세창미디어, 2021년 8월, 320쪽

Martin Schurz / 권오용 역 (충남대 사회학과)

과도한 부에 대항하여 일보 전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자료는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반면, 과도한 부자들의 자산자료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조차 숨겨져 있는 상황이다. 저자 마틴 슈르츠는 편중된 부에 대한 올바른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명확한 자산자료의 확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한편 이 책은 부유함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철학자, 문학가들을 소환하여 부유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목차링크



## 한반도 에너지 전환

탈탄소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

생각비행, 2021년 6월, 348쪽

홍덕화 외 (충북대 사회학과)

7명의 저자는 기존 통일담론의 양분이었던 민족주의, 국가주의, 실용주의를 넘어서 평화, 인권, 정의, 지속가능성, 커먼즈 등의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과 북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을지 논의하며 화두를 던진다. 북한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와 실천의 잠재성을 담고 있는 '능동적인 공간'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남북의 에너지 협력은 더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다. 이러한 때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라는 공간적 스케일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려보는 상상력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할 방향과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실천 과정이 된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다.

목차링크

**회원동정**

- 구분우 회원: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용 (8월 1일자)
- 김인수 회원: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임용 (9월 1일자)
- 김철식 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조교수 임용 (9월 1일자)
- 이향아 회원: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임용 (9월 1일자)
- 조은주 회원: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임용 (9월 1일자)

**신입회원**

(6월~8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경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li> <li>이기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li> <li>김준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li> <li>이신용 (경상대 사회복지학과)</li> <li>남궁명희 (전북대 사회학과)</li> <li>송영조 (동아대 법학연구소)</li> <li>오형석 (중앙대 교양대학)</li> </ul> </li> <li>▪ 준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곽수현 (영주제일고등학교 교사)</li> <li>구은정 (동국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종민 (서울대 사회학과)</li> <li>이석구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li> <li>이미화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li> <li>배세진 (파리대학교 정치철학전공 박사)</li> <li>박미희 (경기도교육연구원)</li> <li>연혜원 (서강대학교)</li> <li>진영은 (경상국립대 사회학과)</li> <li>임정빈 (경상국립대 사회학과)</li> </ul> |
|--|---|

**회원현황**

(8월 31일 현재)

- 총회원 264명 (정회원 252명 / 기관회원 2 / 준회원 10명)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 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회원 회비: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평사회학회)

##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6월~8월)

- 6월 2일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세션준비팀 세미나
- 6월 11일 <비판의 재구성> 1차 열린세미나(공개)
- 6월 19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6월 23일 비판사회학교 <질적연구방법> 강사진 사전 회의
- 6월 25일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세션준비팀 세미나
- 7월 2일 6차 운영소위원회 회의
- 7월 2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7월 3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7월 5일 <비판의 재구성> 2차 열린세미나(비공개)
- 7월 6일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세션준비팀 세미나
- 7월 6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7월 10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7월 13일 비판사회학교 <질적연구방법> 강사진 사전 회의
- 7월 19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7월 19일 7차 운영소위원회 회의
- 7월 26일 4차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 7월 31일 ~ 8월 1일 비판사회학교 <질적연구방법> 강의
- 8월 2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8월 4일 비판사회학교 <비판사회이론> 강사진 사전 모임
- 8월 4일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세션준비팀 세미나
- 8월 6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8월 9일 ~ 8월 13일 비판사회학교 <비판사회이론> 강의
- 8월 10일 비판사회학교 <세계화와 사회변동> 강사진 회의
- 8월 16일 ~ 8월 20일 비판사회학교 <세계화와 사회변동> 강의
- 8월 19일 '비판의 재구성과 사회운동' 세션준비팀 세미나
- 8월 23일 19회 콜로키움: '〈사당동+33〉 조은 감독과의 대답' / 대학원생워크샵
- 8월 26일 비판사회학교 <세계화와 사회변동> 강의록 출판 준비회의
- 8월 28일 '비판의 재구성과 이론' 세션준비팀 세미나
- 8월 31일 '비판의 재구성과 비판사회학' 세션준비팀 세미나

## 추계학술대회 발표신청

■ 대회일시: 11월 12일(금)~13일(토)  
 (※ 진행방식과 장소는 추후공지)

<비판의 재구성>과 관련된 주제나 그 외 자유주제로 논문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9월 17일(금)까지 발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링크](#))

독자적으로 공동발표 세션을 구성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세션 구성을 원하실 경우 첨부해드린 문서의 <세션 구성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 학회근조기 대어

운영위원회에서 학회근조기를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근조기가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학회사무실(02-3148-6220)로 연락주시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학회가 부담합니다.

백색수술



2021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백승욱(중앙대)	부회장 임운택(계명대)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운영위원장 박찬중(광운대)	연구위원장 조은주(전북대)	연구위원 김도균(제주대)
연구위원 김명수(서울대)	연구위원 김재형(방통대)	연구위원 김주호(경상대)
연구위원 김주환(동아대)	연구위원 백영경(제주대)	연구위원 이정연(서울여대)
연구위원 이정은(창원대)	연구위원 전원근(제주대)	연구위원 추지현(서울대)
연구위원 황선재(충남대)	정책위원 박지훈(중앙대)	정책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정책위원 신희주(가톨릭대)	정책위원 이태정(성공회대)	정책위원 홍성태(고려대)
정책위원 육주원(경북대)	대외협력위원 박치현(대구대)	대외협력위원 원재연(연세대)
대외협력위원 조혁진(노동연구원)	정책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외협력위원 이철(노동권익센터)	운영간사 박동열(중앙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임운택(계명대)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위원 김민정(성공회대)
편집위원 박명준(노동연구원)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편집위원 이상철(성공회대)
편집위원 장귀연(노동권연구소)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주은우(중앙대)
편집위원 최현(제주대)	편집위원 구분우(창원시정연구원)	편집위원 박해남(원광대)
편집위원 이향아(경상대)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기원)	편집위원 김명희(경상대)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편집위원 이소훈(경북대)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편집간사 이예진(서울대)	
  
- 이사회

〈당연직 이사〉	이희영(대구대)	백승욱(중앙대)	임운택(계명대)
	최인이(충남대)	박찬중(광운대)	조은주(전북대)
〈선출직 이사〉	이영희(가톨릭대)	오유석(성공회대)	윤상철(한신대)
	조효래(창원대)	이주희(이화여대)	추지현(서울대)
	정영철(서강대)	이향우(충북대)	최현(제주대)
	지주형(경남대)	신경아(한림대)	정철희(전북대)
	윤충로(한중연)	김철식(한중연)	
〈감사〉	공제욱(상지대)	조형제(울산대)	